

5교구2팀 미얀마 사역 보고서



팀장 : 선명환 안수집사

총무 : 조용국 안수집사

서기 : 박광용 안수집사

회계 : 한장현 안수집사

5교구 2팀

2016년
미얀마 선교정보 제공에 감사!
송경삼 장로

차 례

1.총론

- 1)목적
- 2)경과보고

2.미얀마의 이해

- 1)개요
- 2)역사
- 3)교육,문화
- 4)종교
- 5)기타

3.왜 버마족 선교인가?

4.2팀이 만난 목회자와 교회

5.제안

1.총론

1)목적

미얀마 현지 사역거점 마련을 위해 사역현장의 실태 파악과 교구의 선교 사역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2)경과보고

이번 선교팀은 8박9일의 단기선교기간 동안 미얀마 양곤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윤상록, 마성민 선교사님, 정훈채 목사님과 버마족인 뽀린, 흘라소 목사님들, 친족인 살라이, 질, 바우 목사님 그리고 카이 목사님 사모를 만나 함께 예배 드렸으며 미얀마 복음사역의 전체적인 상황과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었다. 현재 까렌족, 까친족,친족등 소수민족들은 복음화율(최고90%)이 높으나 미얀마 인구의 70%정도인 버마족은 불교가 대부분으로 복음화율이 0.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버마족 복음화가 미얀마 복음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현지에서 영혼을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현지 거점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미얀마의 이해

1)개요

◆미얀마의 인구 : 5600만

민족은 다양하다. 미얀마에는 정부가 공식인정하고 있는 **135개** 민족이 존재하고 있다.

- **버마족 68%**
- 산족 9% ,까렌족 7% , 중국계 3% ,인도계 2% ,몬족 2%,기타 5%

◆ 행정 구역

미얀마의 공식 수도는 **네피도**(2006년 초까지는 **양곤**)이며

행정구역은 7개 구역(yin)과 7개 주(pyine)로 되어 있다.

구(Yin)는 **버마족**이, **주(Pyine)**는 **소수 민족**이 주로 거주한다.

구(Yin)

- *사가잉구(Sagaing Division)
- *타닌타리 구(Taninthayi Division)
- *바고 구(Bago Division)
- *마궤이 구(Magway Division)
- *만달레이 구(Mandalay Division)
- *양곤 구(Yangon Division)
- *에야와디 구(Ayeyawady Division)

주(Pyine)

- *카친 주(Kachin State)
- *카야 주(Kayah State)
- *카인 주(Kayin State)
- *친 주(Chin State)
- *몬 주(Mon State)
- *라카인 주(Rakhine State)
- *산 주(Shan State)



◆ 언어

미얀마어가 공용어이다.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약간의 영어도 사용된다

◆종교

- 불교 89%, 기독교 4%, 이슬람교 4%, 정령 신앙 1%
- 기타 신앙 2%

버어마족의 대부분은 불교이며 소수민족은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다

◆경제

미얀마의 통화는 **미얀마 찻이다**

헌법은 **국가가 모든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자임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 결과 미얀마에서는 **私人(자연인과 법인)에 의한 토지의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私人에게는 적용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권**(점유, 사용, 임대 등을 할 권리)이 인정되며, 이러한 권리는 **양도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당국의 허가를 얻어 이용되는 토지를 **許可利用地(permit land)**라 한다. 허가이용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농업용의 허가이용지는 양도에 제한이 있지만 농업용 이외의 허가이용지는 허용 범위 내에 있으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私人은 해당 허가이용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임대차의 내용을 토지행정국(Land Administration Office)에 통지하여야 한다.

2)역사

◆영국의 식민지 통치

각 종족들을 분열시켜 서로 대립하게 하는 통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오늘날 **미얀마 종족 갈등의 씨를 뿌렸다**.

1885년 미얀마를 식민지로 삼은 영국은 미얀마인들의 토지를 수탈한 뒤, 값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끌어와 농사를 지었다.

당시 영국은 미얀마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계 무슬림**을 데려와 각 정부 부처에 **준지배계층**으로 등용했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흘러들어온 **로힝야족**은 미얀마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상위계층**으로 살았다.

결국 미얀마인들은 로힝야족에 대한 분노를 키워가기 시작했고, 영국이 물러가자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과 박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식민 통치 기간 중 소수민족인 **카렌 족**을 앞세워 다수 종족인 버마족을 억압하고 차별하였으며, 영국과 함께 미얀마로 건너온 **인도인과 중국인**들은 **양곤 등 도시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였다.

3)교육,문화

유치원

미취학아동은 2년 남짓 유치원에 다니는데 5살 이상이어야 한다. 미얀마에서는 고등교육을 제외하고서는 초등교육청이 관할하며 첫 입학일은 6월 1일이다.

초등교육

공식적으로 미얀마의 초등교육은 의무이다. 5년이며 중등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기본 과목 승급 시험을 봐야만 학년이 올라간다. **음악교육이 없다**

중등교육

5-8학년이 중학교, 9-10학년이 고등학교이다. 기초교육8학년 시험을 통과해야 고등학교로 진급할 수 있다. 10학년 마지막에는 기초교육10학년 시험을 통과해야만 증서를 받는다. 졸업 시험을 통과하면 학위A나 학위B를 받게 된다. A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대학

10학년 졸업시험에 합격한 점수에 따라 군 대학, 의대, 컴퓨터, 외대, 공대, 치대, 상대 순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다. 외국유학은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 그리고 일정기간(3년) 정부에서 의무근무를 해야 한다.

대다수의 서민층과 가난한 가정에서는 잘해야 **8학년(중학교) 졸업**을 하거나,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곳에도 일종의 방통대가 있는데 한국보다 더 좋은 인식과 대우를 하고 있다. **일반대학은 계속 문을 닫아오다가 2001년 12월에 문을 열었고 4학년과 대학원생은 양곤 캠퍼스에서 1-3학년까지는 시외의 외각에 건물을 세워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주화 데모 때문이다.** 현재 도시에서는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이 고조되어 컴퓨터 학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어대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어과를 지망하는 학생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 학원도 등장을 하였다. **외국인 자녀들은 미얀마 정부가 허용을 안하므로 현지인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 신 학교는 공식적으로 정부의 학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

미얀마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난 요일별로 이름을 짓고 미얀마의 상징인 쉐다곤 파고다에 가게되면, 자기가 태어난 요일의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참선을 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선을 하고 특히 아침에는 집안에 설치된 불상 앞을 신선한 과일과 꽃으로 장식하고 향을 피운다. 아직까지 전통 음악과 춤이 많이 공연되고 있으며, 일반 음악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Under Ground 음악이 성행하고 있으며, 소수의 부유층 자녀들은 머리카락을 물들이기도 하고 남녀가 공통적으로 입는 전통치마인 "론지"대신 바지를 즐겨 입는다. 이곳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경멸의 대상인 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성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부유층 집 자녀들이 외국에 다녀오거나 샷타라이트 위성을 통해 외국의 문물을 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백화점에서는 소규모의 패션쇼와 화장품 선전 쇼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곳에서는 밤에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 바깥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 거리의 여자나, 질이 안좋은 여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찻집에도 여성 혼자 가지 않으며 가더라도 둘, 셋 이상이 함께 간다. 이유는 전과 동일하다. 일본식 가라오케 유흥점 특히 맥주 집이 늘고 있으며 탈선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영화는 미국, 인도, 홍콩 영화 등이 수입 방영되고 있다.

4)종교

※2015년8월31일에 통과된 종교법등

종교법에 대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종교로 개종을 원하는 사람은 각 지역(면 단위)에 설치된 "등록위원회(Registration Body)에 개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등록위원회에서 개종에 대한 최종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는 법이다.
2. 불교신자인 여성이 비불교신자인 남성과 결혼을 하고자 할 때, 비불교신자인 남성은 국가가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결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불교 신자끼리의 결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지만, 불교도 여성이 비불교

도 남성과 결혼을 하고자 할 경우, 남녀 당사자의 결정도 아니고, 양가 부모 간의 결정도 아니고, 국가가 개입해서 그들의 결혼을 최종 결정해 준다는 법이다.

※불교는 800년 역사의 철학으로서 "야다나 3바(보물 3가지)"인 **붓다. 설법, 중** 등을 가장 존중하며, 어린아이가 7살이 되면 공식적으로 "신뽕"라는 불교 입문 의식을 치루고 1주일간 폰지 짜웅(절)에서 동자승 생활을 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기에 많은 비용을 드려서 이 의식을 치른다.

또한 누구든지 평생에 한번은 절에 들어가 "폰지(중)"가 되어 참선을 하여야 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버려진 아이들이나 고아들은** 특히, 버마족 아이들은 **절**에 보내져 중으로 자라게 된다. 공식적인 중은 전국적으로 약 35만 명 정도가 있다.

개신교 역사는 1813년 7월 13일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 입국 이후 약 200여년이 되었으나 그 동안 이렇다 할 부흥이 없었으며, 1962년 미얀마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이전에 공식 250여명(비공식:1,000여명)이 넘는 서구 선교사가 있었으나 모두 추방되었었다. 헌법상 현지인에겐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나 형식상의 것이다.

불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국교나 다름이 없다.

1999년 공식 통계로 양곤에만 43개의 신학교가 있으며, 2003년 침례교단 통계상 침례교 신학교(종족별 포함)만 36곳이 있으며, 순복음 계열 및 기타 군소 신학교를 합하면 100여 개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에서 학제 인정은 아니나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학교는 4곳(양곤) 정도**이며, 교회는 양곤과 북쪽의 깔레묘, 미찌나에 집중되어 있다.

교회 수는 1999년 공식 통계상 양곤에만 265개 교회가 있으며, 침례교회 72개, 감리교 11개, 장로교 6개, 독립교회(오순절 계통) 136개, 기타 40개 교회가 있다. 2005년 현재에는 양곤에 Home Church까지 합하여 500여 개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6000여 개로 추산하고 있다.(침례교:4000, 기타:2000)

가장 큰 교단은 약 20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침례교단**이며, 양곤에서 주일날 700~100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5곳 이상이나 있다.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는 교인들이 더 많이 베푸는 교회로 옮겨가는 것과 지방의 기독교인들이 양곤으로 집중됨으로 인해 **실질적 성장보다는 수평이동이 더 많다.**

소수 종족 중 "친"족 90%, "까친"족 60%, "까렌"족20(40)% 등의 기독교 인구

성장이 있으나 자기 종족 중심의 성장이며 다른 종족으로의 복음 전파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유로는 종족 이기주의, 다른 종족과의 갈등, 지역간의 거주 이전이 힘들고, 사회적인 신분 차별 등이 있기 때문이다.**

2004년도에는 정부의 명령으로 양곤의 40여 개 교회와 신학교 두 곳이 폐쇄되었다. **언제든지 불교도들의 고발이 있으면 교회가 폐쇄된다.** 불교도들은 이슬람교는 폭력적이라고 하여 매우 싫어하나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행을 많이 하는 하나의 좋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4)기타

불교도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 (1) 기독교는 서구 종교이다.
- (2) 소수 종족의 종교이다.
- (3) 열등한 종교이다.
- (4) 업의 종교다.(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전생의 업보인데, 그것을 믿기에)

3.왜 버마족 선교인가?

미얀마불교는 소승불교이다. 나면서부터 불교적 생각과 삶의 방식에 젖어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버마, 몬, 라카인 산 종족은 매우 강한 불교도들이다.

미얀마에 135개 종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인구의 약 70%에 가까운 종족이 버마종족이다. 현재 미얀마 안에 6%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소수 종족들이요, 버마종족의 기독교인 비율은 전체의 0.3%에 그치고 있다.

버마종족은 거의가 불교도이며, 미얀마의 지배계층이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종교이며, 소수종족(피지배계층)이 믿는 종교이며, 업의 종교(십자가 사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1885년 **미얀마의 영국의 식민 통치**부터 6%에 달하는 기독교인 소수종족들은 이때부터 싹터 온 **종족간의 감정** 때문에 **버마족에게는 전도를 하지 않고, 자기 종족들에게만 전도를 한다.** 버마족은 버마족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다른 종족은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버마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절대다수요, 각 분야에서 지도층에 있는 버마족을 전도하지 않고는 미얀마를 복음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버마족이 복음화된다면 미얀마 기독교의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비록 더디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버마족 선교가 미얀마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미얀마에도 주민등록증같은 신분증이 있다. 이 신분증에 "종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개종에 따라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 하다. 개종시킨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현직 목회자의 신분증도 변경하지 못하고 그대로 "불교"로 기재되어 있다.

4.2팀이 만난 목회자와 교회

1)윤상록 선교사

미얀마 인센지역에서 활동하는 목사님이다. 처음부터 한 교회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다. 미얀마의 군사정권, 한국의 IMF, 금융위기등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셨고 꾸준히 현지인 사역자를 양육하고 있다. 지금은 지교회가 6군데가 있다. 본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교회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그 예로 새벽기도회가 있으며 취학전 어린이나 유치원을 개설해 이웃주민과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한 다음 전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이다.



[교회 전경]



1층,2층 구조로 되어 있어 1층은 유치원, 2층은 예배실(아래 사진)로 사용



2)마성민 선교사

미얀마에서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으며 **Wec 국제선교회** 소속으로
현재 교회 사역은 하고 있지 않으나 **버마족 목회자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래사진 교육장



왼쪽: 윤상록 선교사 오른쪽: 마성민 선교사



우리 선교팀을 소개하는 마성민 선교사



[공부하는 모습]

3)뮐린 목사

교회는 버마족 고급 주택지와 빈민촌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성도수가 98여명 된다. 교회 개척한지는 17년 되며 18명으로 시작하였다.

군부정권시절에 이웃이 고발하여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나 2010년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며 유치원도 개원하여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목사님은 버마족이며 사모는 카렌족이다. 3명의 부목사 양육중이다.



위사진 왼쪽부터 마성민 선교사, 흘라소목사, 뮐린 목사부부

4)홀라소 목사

92년결혼후 중부에서 5년간 사역을 하였는데 20년전 이곳 웨비타에서 개척하였다.목사님 부부는 버마족이다.현재 성도는 50여명 정도



홀라소 목사님과 함께



5)Thein Than Win(텐 탄 윈)목사

구마일교회(뮌윈 목사 시무)에서 부목사로 시무하고 계시며 쉼비타지역에 개척할 예정이다. 버마족이며 36세



6)정훈채 목사

현지에 신학교와 선교센타를 22가정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교 졸업생 31명이 개척하였고 이들을 감독 ,관리하고 있다.
이곳 신학교는 40명이 기숙하고 있으며 버마족이 60%.
4년제 유아교육학과도 개설하였으며 모두 기숙하고 있다.미얀마 정규대학에 유아교육학과가 없다



7)바우목사, 살라이목사,Zel목사,카이목사교회

살라이목사와 카이목사는 충현교회에 출석했던 목사님이시다

바우목사와 Zel목사는 이분들의 친구분이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친족이다.

*카이목사님은 미국에 가셔서 안계셨고 친구 목사님이 대신 나오셨다. 성도들이 기다린다고 해서 도착해서 보니 카이목사,바우목사 가족만 있었다.

주일에 바우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역시 가족과 어린이만 모여 있었다.

*살라이 목사님과 Zel 목사님은 교회를 시간대별로 임차에 쓰고있었고 “고아원”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한 곳은 미션센타인 것 같았다.

“고아원”이라는 곳에 대한 설명이 두 분이 다르게 하였다



[바우 목사님 교회]



[카이 목사님 가정교회 내부]



[살라이 목사님이 말한 고아원]



[그 내부 모습 왼쪽 벽에 미션센타 프랭카드가 보인다]

5.제안

1)전문화

*미얀마 언어를 심도있게 배워야 한다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필수적이다.

2)협력 선교사 선정과 그 이후

*첫째 : 버마족

*둘째 :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서 양육 되었어야 한다

*셋째 : 유치원을 개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웃과 관계개선 및 전도의 핵심이 된다

*네째 : 개척 지역이 버마족 밀집 중산층과 저소득층 혼재지역

*다섯째 : 개척 지역에 살고 있거나 연고가 있어야 한다.

이웃에서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수 없다

3)우리의 과제

*어떻게 누가 관리, 감독 할 것인가?

*미얀마언어습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교구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가?

*선정이후 교회의 정책과 교구추진 정책의 일관성

*선교팀간 파송 간격이 너무 길다 이것을 좁일 수 있는 방안?

*노방전도는 자제하고 축호전도를 하되 영상물이나 혈압측정, 당뇨검사를 해준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모은다